

지역 소식통



정읍시, 외래생물 퇴치 '총력'

정읍시가 무분별한 증식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외래 생물 퇴치에 총력을 쏟았다.

시는 "생물의 다양성을 해치고 있는 외래 생물로부터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외래 생물 퇴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베스과 블루길 등 외래 어종이 지역 내 주요 저수지와 하천 전역에 걸쳐 서식하고 있다. 또 양미역취와 가시박 등 외래 식물들도 정읍천과 고부천 등에서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블루길과 베스 포획·수매 사업을 추진했다.

이 기간 모두 1280kg을 포획·수매했고, 보상금 64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외래 식물 퇴치사업도 펼쳤다. 5월 말 만석보 일대에서 잡초 서식지를 늘려가고 있는 양미역취 2만㎡를 제거했다.

김생기 시장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단 방류 등의 원천적 유입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고창초등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 CPR(심폐소생술) 요령 ▲ AED(자동제세동기) 사용법 ▲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 요령(하임리히법)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요령과 화재 시 대처 요령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용 마네킹을 활용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 등 실제 응급상황을 가정한 심폐소생술 체험 등 실습 위주로 진행돼 학습효과를 높였다.

고창소방서 교육담당자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까이 있는 학생과 교사들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단속

## 정읍시보건소, 이달 중순부터 내달 중순까지 밀 경작 우려지역 대상

정읍시보건소가 이달 중순부터 내달 중순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보건소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고창·부안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밀 경작 우려지역에 대한 탐문 수사와 현장 단속 등을 통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반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및 매 폐 등의 공급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투약(사용) 사범에 대한 계도를 통해 수요를 억제 하겠다"고 밝혔다.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무거운 사람과 동종의 전과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초범인 밀 경작의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과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전년도 재배실적 등을 면밀히 수

사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특히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 경작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은폐된 장소에 대한 특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상습으로 영숙(罌粟)을 사용한 경우 중독 현상을 일으켜 생명의 위협을 초래한다. 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영숙은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식품야생약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 이외에는 재배할 수 없다.

승인 없이 영숙을 재배하거나 종자를 소지, 소유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종자 관리, 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

기징역을 받게 된다.

또 상습으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면 뇌신경 마비로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게 된다.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배자, 재배지, 재배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약류 사범의 신고나 문의는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국번 없이) 1301, 또는 063.570-4343에 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 보장은 물론 신고자에게는 법정액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 2분기 통합방위회의

## 5개 업체와 지역방위 민간물자조달 협약 체결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는 12일 2분기 통합방위 회의를 가졌다.

"호국영령들의 거룩한 뜻을 받들고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자"는 의제로 열린 회의에는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장과 예비군중대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전쟁·사변 등 통합방위위협 시 민·관·군·경 지역 통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지역방위 작전과 훈련에 지원할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민간물자조달 협약을 체결했다.

김생기 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와 사드배치 문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일본군 위안부 협상문제 등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긴박한 상

황이다"며 "하지만 국민의 안보의식이 높고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끝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는 5개 업체와 지역방위 민간물자 조달 협약도 체결했다.

향토 방위군 710명에게 식사를 공급할 업체는 ▲한솔도시락 류민영(250명) ▲황우촌 양종덕(60명) ▲양지물양명순(200명) ▲정읍시청구내식당 김생기(200명) 등 4개 업체이다.

또 향토 방위군을 수송할 병력 수송차량 공급할 업체는 ▲(유)이성고속관광 유준환(버스 16대)이다.

이들 업체는 올해 12월까지 지역방위 작전과 훈련 시 정읍시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물자를 즉시 공급해야 한다.

/정읍=김대환기자

한편 이들 5개 업체 외에도 기간협의회가 지역방위 물자조달 약정을 체결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유)신화안전공사 이인석(방독면 1000개) ▲코오롱스포츠점점 김형석(방한장갑 1,000점) ▲종한(제리우) 임태선 조금례(겨울내외·겨울양말 각 1000점) ▲블랙야크점점 반성화(운동화 1000점) ▲아디다스점점 이종구(방한장갑 500점) ▲노스페이스점점 김수경(방한장갑 500점) ▲서울모자점 김연일(방한모자 1000점) ▲인쇄나라점점 오승욱(포스터 5만매) ▲쥬얼리포인트 김형일(시멘트 벽돌 100만장)이다.

김생기 의장은 "통합방위위협 시에 따른 돌발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통합방위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의회, 농촌일손돕기 나서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지난 9일과 12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일손 돕기에 나섰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6월 9일에 장명동 매기마을 박근수씨 농가를 방문하여 마늘 수확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상교

동 백학마을 김성열씨 농가에서 매실 따기 작업을 400평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유진섭 의장은 "금년 농번기에 일손 돕기가 급격한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턱없이 부족한 일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살맛나는 농촌에서 농민이 활짝 웃는 그

날까지 농민들의 고충을 제일 먼저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의회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가에서도 "평소 농사일이 익숙하지 않은 시의원들이 무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며 부족한 농촌 일손을 덜어주고, 농민의 애로사항을 진지하게 청취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였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슴도치섬 부안 위도 주말장터 개장

'고슴도치 아일랜드'로 유명한 고슴도치 섬 부안군 위도 면에서 주말장터가 지난 10일 개장됐다.

'힐링의 섬 위도, 위도면은 그동안 볼거리, 먹을거리 등이 부족하다는 관광객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6년 6월 주말장터운영회를 구성해 지난해 여름 고슴도치 섬 주말장터를 처음으로 운영해 관광객과 탐방객들로부터 인기 속에 오는 10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장된 고

슴도치 섬 주말장터는 6명의 장터 운영회원들이 위도면 생산 농·수·임산물과 먹거리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기동 주말장터운영회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주말장터를 개장함으로써 위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통해 또 하나의 관광상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있게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 산림청 개청 50주년 숲속음악회 개최

## 16일 변산자연휴양림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전북 변산자연휴양림에서 16일 오후 2시부터 이용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회가 펼쳐진다.

산림청은 개청 50주년 슬로건으로 "같이 이룬 푸른, 함께 나눌 푸른 숲"으로 정하고 지난 1967년 개청 이래 온국민과 산림청이 푸른숲을 가꿔나가는 의미이며 국민들과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다짐의 표시이며 이번 숲속음악회를 통해 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산림청"이라는

주제로 숲속 음악회를 펼칠 예정이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오는 16일 숲속 음악회 방문한 이용객은 숲속 음악회 및 자연휴양림 다채로운 체험 자연물을 이용한 "솔방울 숲속 친구들 만들기"변산변산의 특산물인 천일염에 함 초, 빵, 인, 복 분자를 넣어 건강에 좋은 천일염 삼색 건강 소금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알찬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전한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자연휴양림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 부안 행안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부안군 행 안면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12일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근무시 유의사항, 사고 발생시 대처법 등 근무자 안전 전반에 대한 주지내용으로 진행됐다.

행 안면 관계자는 "현재 어르신들

이 2개 조로 반을 편성해 쓰레기 수거 및 가로환경 정비에 힘쓰고 있다"며 "평소 배려의 대상이었던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유도해 행 안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o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